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물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그대, 하나님의 사람아!

물이 그릇 닦하는 것을 보았는가? 환경 닦하는 걸 보았는가? 둥그런 그릇이면 원기둥으로, 각진 그릇이면 각진 대로, 작은 종이에도 합지박에도 닦하지 않고 적응하는 것이 물 아닌가. 추운 겨울에 얼어붙어도 잠잠히 인내하다 봄이 되면 다시 녹아 흐르고, 너무 뜨거우면 증류수로 변했다가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물 아니던가. 낮은 곳으로 흘러도, 낭떠러지를 만나도 가는 곳이 어디인지 몰라도 의연하게 나가지 않던가. 또 물은 가문 땅에 스며들어 동식물을 살리고도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네. 밥을 할 때 쌀 속에 스며들어 자신의 자취가 사라지나 맛있는 밥이 된 것으로 감사하지. 커피에 물이 들어갔으니 커피라고 부르지 말고 커피물이라 하자고 우기지도 않지. 그저 사람들이 행복한 것으로 물은 만족한다네.

그런데 그대, 하나님의 사람은 왜 그리 불평이 많고, 탓할 게 많은가. 그대도 물처럼 살아보지 않겠나? 환경에 적응하고, 즐기며 매사 감사하면서 살아보지 않겠나? 사도 바울이 비천하고 궁핍한 환경에도 적응하고, 풍부한 환경에도 적응하더니 그를 통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며 감사한 대목이 빌립보서 4장이라네. 자고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경지수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었네. 아브라함, 야곱, 요셉도 그랬고, 모세, 다윗, 다니엘...

불평불만 하는 것은 밭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지. 매사 되는 꼴이 없네. 이제 그대도 물처럼 매사 감사하며 살면 그대로 인해 주위가 살아나고, 만인이 살아날 것이야.

그대, 하나님의 사람아!

마음을 지켜 불평불만을 다스리고 역경을 이겨내게. 물처럼 뒤는 탓하지 말고 ‘~덕분에’ 하며 살게나.

대농(大農)이 되려면 우물을 깊게 파라

전북예수중심교회, 이는 어린 종 김영중 목사가 전라북도 익산에 세운 교회다. 지난 시월의 마지막 날, 전북예수중심교회에서는 이초석 목사님을 모시고 입당예배를 드렸다. 교회를 봉헌한지 9년 만에 증축한 것에 감사하여 입당감사예배를 드린 것이다.

목사님은 입당예배에 오시기 전, 먼저 익산예수중심교회를 방문하여 양종성 목사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다. 해산의 수고로 자녀를 낳은 어미의 심정이 읽혀졌다. 이 날 목사님은 ‘우물을 깊이 파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는 제목으로 참석한 자들을 독려하셨다.

“김 목사가 교회에 관해 이것저것 내게 물었을 때 내가 그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영혼을 농사짓는 일에도 기본은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명문대학 나왔다고 목회를 잘 하는 게 아닙니다. 박사라고 큰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사막에도 물만 있으면 초목이 자라고 유실수에 열매가 맺히듯, 교회의 조건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진하면, 즉 땀방울이 대지를 적시면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나가 설교하시니 광야에도, 바닷가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든 것입니다. 김 목사는 제2의 이초석 목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초석

으며 그 앞사귀가 시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시1).

중국 청 왕조의 4대 황제인 강희제는 “만인이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만인을 섬겨야 한다.”, “황제가 백성의 일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온 천하에 근심을 끼치게 된다.”는 유명한 말을 했고, 이를 실천했습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부지런히 백성을 살피고 섬기는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양떼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단골손님에게 의무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은 언제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김 목사를 비롯한 여기 참석한 모든

자들이 오늘의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여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고, 기초체력이 없으면 건강에 이상이 온다. 신앙의 기초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다.

전북예수중심교회의 번성은 오직 기도에 있다.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전북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 (2017. 10. 31)

다. ‘네 아버지가 대농이니 너는 잘 알 거다. 농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다. 물 확보가 농사의 기본이다. 그런데 물이 언제나 풍족하면 좋으련만 날이 가물어 땅이 쪼크 쪼크 갈라질 때도 있단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혜로운 농사꾼은 우물을 깊게 판다. 그러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지.’ 김 목사가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다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비유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농사짓는데 물이 기본이듯,

목사를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나는 하루 4시간 기도는 기본이요, 집회가 있을 때는 6~7시간 기도합니다. 자량이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메마른 심령에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방하고, 구제하고, 교회재정 살피느라 기도 안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적격자에게 역할 분담을 시키고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합니다(행6:3~4).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과실을 맺

자들이 오늘의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여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고, 기초체력이 없으면 건강에 이상이 온다. 신앙의 기초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다.

전북예수중심교회의 번성은 오직 기도에 있다.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전북예수중심교회 담임 김영중 목사 부부



전북예수중심교회전경



목사님은 예배 후 일일이인수하셨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13:16~23)



성공하려면 코드가 맞는 자와 일하라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코드가 잘 맞는 자와 일하십시오. 마음이 맞는 자와 동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대업을 꿈꾸십시오.

‘코드가 맞는다’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며 동지적 개념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의중이나 뜻이 잘 맞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의 크기나 방향이 맞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톱니바퀴의 크기가 맞을 때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맞는 자와 일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마음에 맞지 않자 다른 이를 대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삼상13:14).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행13:22). 하나님은 오로지 다윗이 우리아의 처를 범한 사실 하나 외에는 다 마음에 맞으셨기에(왕상15:5)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 열둘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신 후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막3:13).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거할 때의 일입니다. 그들 각자의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생각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창13:9). 잘한 겁니다. 절대 갈라서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협력과 융화로 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것이 아니면 갈라서야 서로가 삽니다. 고름은 짜내야 하는 것이 이치고, 짜내야 나중에 대수술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맞는 자는 우주와도 안 바뀐다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출발에 앞서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행15:2). 그래서 이 둘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각각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기로요(행15:37~41).

이건 누가 나쁘고, 누가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잠21:9)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인’ 대신에 ‘직원’이나 ‘동업자’를 넣어보세요. 감(感)이 올 겁니다. 다투면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이유는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맞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엄청나게 빨리 갈 것입니다.

한 마라톤경기에서 우승을 한 사람에게 42.195km를 달릴 때 어느 코스에서 가장 힘들었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는 “마라톤 코스가 힘든 것이 아니라 신발 안에 모래 한 알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내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록을 못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신발 안에 모래알 하나,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그런 자가 단체 속에 있다면 그 단체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라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12)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줄보다 삼겹 줄이 질 겁니다. 그러나 삼겹이 그냥 있는 것보다 서로 꼬여서 하나가 될 때 더욱 질 것입니다. 마음과 뜻이 맞을 때 더욱 능력과 성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학벌이나 배경, 외모만 보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나 살다보면 성격이나 취향, 취미 등 공통분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부모들도 마음에 맞는

자식과 살아야 편합니다. 꼭 장남하고 살아야 한다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딸이 편하면 딸하고 살고, 둘째 아들이 편하면 그 아들과 살면 됩니다. 자식들이 다들 불편하게 한다면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잠15:13).

잘 맞아야 하는 코드 중에 하나가 ‘신앙’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 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고후

6:14~16). 신명기 22장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갈지 말며”(신22:10)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와 나귀를 한 쟁기에 매어 끌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 유대 율법에는 소와 나귀가 같은 명예를 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와 나귀는 몸체의 크기가 다르고 힘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몸체와 힘이 적은 나귀가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명에는 힘센 황소끼리 매는 것도 약한 나귀끼리 매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암수끼리 명예를 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자와의 동업이나 결혼, 모사나 대업을 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와 함께 하는 것은 소와 나귀가 함께 명예를 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로가 안 믿는 자와 동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말렸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장로가 결정할 일이었지만, 저는 말씀대로 가르쳤습

고름이 살 안 된다 아파도 짜내야 한다

안 믿는 자와 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후 신접한 여인과 하나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넘어졌습니다. 재산과 지체가 어느 열왕들보다 컸던 솔로몬, 그런 그가 이방여인들을 취하고, 그로 인해 이방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당과 아세라 상을 제하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하던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정략결혼을 시켰습니다. 또한 정략결혼으로 아합과 동맹을 맺기도 한 그는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는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다 자신은 겨우 목숨만 건지는 사태에 이르고 맙니다.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맺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세상과 등 돌리고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신명기 7장 3~4절의 말씀이 답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찌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 사업, 동업을 막는 이유는 고난과 꾀박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솥을 가까이 하면 솥검정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 신앙과 사상, 뜻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동업을 하십시오. 동질성이 코드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하나님 편에 서는 삶 ::

사랑의 종소리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세상을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랑을 주려 하심이요,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일이다. 그 사람은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요 결코 내어쫓지 않으실 것이다. 주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마음이 임하여 헌신과 충성의 욕구가 샘솟는다. 성령께서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안위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혹은 ‘주께 충성하라’는 계명을 잘 순종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계명을 교회가 거듭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교인들 사이에 다투고 서로 미워한다든지, 교회 일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협력을 거부하거나 떠나기로 결심한다든가 하는 태도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인들과 다투고 미워해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무 잘못이 없다고 믿는 자들을 겨냥해서 주님은 그런 사랑의 계명과 충성의 계명 등을 주신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현실적 증거이며,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실제적 방법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받는 것은 다르

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여 죽였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또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모든 욕망과 지식과 명예를 꺾어버리고 주님 사랑함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이 많아도 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금식할 수 있으며, 세상의 쾌락의 시간이 많아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돈을 좋아해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으며, 명예도 초개처럼 버리고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요, 죄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다른 일이 아닌 “내 양을 먹이라”(요21:15~17)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 법을 지켜라, 주를 위하여 죽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바탕 위에 있다는 것은 알라(롬 8:15).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가는 곳이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신앙논객 ::

사나 죽으나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 존 웨슬리와 드와이트 무디의 생애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18세기 초 영국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이 다 목회자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20대 중반에 명문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교수가 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신학 공부와 경건 운동에 매진하였고, 마침내 30대 초반에 청빈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삶을 통해 회심을 경험한 뒤에는 영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 전파와 사회 운동을 전개하며 감리교단의 창시자가 됩니다.

반면 19세기에 미국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드와이트 무디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무디는 17살 때 그리스도인 삼촌의 구두 가게에서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교회의 주일학교에 출석하게 되었고, 1년 만에 주일학교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회심하여 미국 전역을 뒤덮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책을 읽은 후 달라도 너무 다른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과연 무엇이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때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14:7~8). 모든 것이 달랐지만 하나님을 만난 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데에 그들의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한 뒤에는 핍박과 순교를 무릅쓰고 일생을 헌신한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되었고, 총회장 목사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에는 부귀영화를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니까요.

물론 자신이 담긴 그릇을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니까요.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이기는 습관

몇 달 전,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는 신체기능을 만드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 운동은 힘들기로 소문난 운동입니다. 크로스핏을 경험한 여러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운동인데, 평소 운동량이 많지 않았던 저는 첫날부터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 근력 밖에 없던 몸이었으니 팔굽혀펴기를 세 번도 소화해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 이를 꾸준함을 무기로 더디지만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하기도 그렇게 어렵던 팔굽혀펴기가 한 달이 되니 열 번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몇 달이 지난 지금은 스무 번을 거뜬히 해냅니다. 운동을 통해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보면 결국 성취하게 되는 ‘이기는 습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살며 여러 번 무너

집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 멀리하라고 하신 것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고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도 ‘이기는 습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자주 넘어지지만 매일 죄와 싸워 조금씩 더 이기려고 노력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로 죄를 이기는 습관’, ‘말씀으로 죄와 싸우는 습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요일5:4).

김경현
kyunghyunjudy.kim@gmail.com



:: 귀를 기울이세요 ::

믿음의 유산

이른 아침, 나의 잠을 깨우는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소리. 오늘도 여전히 총회장 목사님의 오디오 설교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기도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아침을 맞이한 지 수십 년, 또 칼퇴근을 하고 오랜만에 집에 일찍 귀가한 날, 어머니는 항상 식사를 차려 놓으시고 급하게 현관문을 나가신다. 어머니께 묻지 않아도 하루도 빠짐없이 향하는 곳을 알고 있다. 그곳은 예수중심교회의 한 기도처. 그리고 저녁 늦게 귀가한 나를 맞이하는 것은 성경을 보고 계신 어머니의 뒷모습이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2가지 믿음의 유산이자 선물을 물려주셨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쉬지 아니함’과 ‘성경을 가까이 함’이었다. 성인이 되고 삶이 바쁘다 보니 어머니처럼 기도를 쉬지 않는 것과 늘 성경을 보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아침을 시작할 때와 하루를 마칠 때 기도하시는 어머니, 말씀을 보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나도 꼭 저런 믿음의 방법을 실천하는 어머니 되리라.’

“이는 네 속에 거 것이 없는 믿음을 생

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 하노라”(딤후1:5).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독실한 신앙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고, 그의 거짓없는 믿음은 바울을 기쁘게 한다. 모태로부터 나오는 신앙의 뿌리는 ‘디모데’라는 담대한 종을 배출시킨다.

‘기도해라’, ‘말씀 보라’는 백 마디의 말보다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것을 보고 자란 나는 ‘아! 하나님 말씀 봐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으로 해답을 찾고 말씀에서 진리를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2가지 선물,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사모하는 습관’은 이 세상의 어떤 값진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의 유산이 되었다. 내게 유니게와 같은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작은 친절

하와이 어학연수를 마친 후, 하와이의 이웃 섬인 빅아일랜드를 여행했습니다. 제주도의 8배 정도 되는 큰 섬이지만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는지라 차를 렌트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오기로 한 친구는 면허가 없고, 저는 반년 전에 자동차 연수를 다섯 번 받았던 게 제 인생 운전경력대전부인 지라 겁이 났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 제가 운전대를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리 운전 연습도 하고 섬도 둘러볼 겸 친구가 오기 7시간 전에 먼저 빅아일랜드로 가서 예약해뒀던 차를 빌리려는데 무슨 영문인지 제 신용카드에 자꾸 에러가 생겨서 내일 다시 오라는 겁니다. 결국 차를 못 빌리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 막막한 와중에도 배는 고프고 공항에서 서성거리며 7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 일단은 근처 식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구글맵에 검색해보니 가장 가까운 식당조차 걸어서 45분 정도 떨어진 곳이더군요. 할 수 없이 제 몸짓보다 두세 배 큰 배낭을 메고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피악별을 삼분의 일정도 걸었을 즈음, 갑자기 어떤 자동차 한 대가 비상 깜박이를 켜고 제 앞 쪽으로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는 항공

사 유니폼을 입은 인상 좋은 아주머니가 앉아계셨고 옆자리에 놓인 자기 가방을 뒤져 석으로 치우며 저보고 타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체구에 큰 배낭을 메고 걷는 게 안쓰러우셨다고요. 덕분에 식당까지 편히 갈 수 있었고 기대치 못한 친절에 마음이 금세 풍족해졌습니다.

다음 날, 다시 렌터카 회사로 갔습니다. 다행히 신용카드가 되었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차가 커다란 지프차 딱 한대뿐인 겁니다. 중형차도 버거운 썬 초보운전자인 제가 외국 땅에서 지프차라니요. 하지만 자동차 없이는 어디를 갈 수가 없고 빅아일랜드 사람들은 친절해서 편찮을 거라는 렌터카 직원의 응원에 힘입어 기도를 하고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도로 운전은 적응이 제법 됐는데 난관은 주차였습니다. 그 덩치 큰 차를 주차하다가 결국 옆 차를 박고 말았지요. 차 주인은 차 상태를 보더니 타이어에 부딪혀서 별 문제 아니라며 걱정말라고 했고, 제가 초보운전자라고 말하자 저대신 주차를 해주었습니다. 찡그림 하나 없이 환한 웃음을 하고서요. 놀라운 건, 주차를 못해 힘들어하던 저를 위해 순순히 자신의 차

에서 내려 대신 주차를 해준 고마운 분이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와이에 반년 넘게 지내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나 묻는다면, 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들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작은 친절, 배려를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들, 눈이 마주치면 낯선 사람에게도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을 만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 인사하는 사람들. 한국에 살면서 오랫동안 잊고 지낸 그 작은 친절이 얼마나 좋던지요.

그동안 저는 낯선 사람에겐 친절도 웃음도 인색한 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길을 물어오면 당황해서 무시한 채 지나치고, 바쁘다는 핑계로 도와야 할 길을 피해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친절을 받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마음을 풍족하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지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이제 저도 작은 친절을 베풀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사소한 친절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아프리카의 인쇄업체에서 미국의 유명한 회사로부터 대형인쇄기 한 대를 수입하여 시운전을 하던 도중에 원인 모를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판매회사에 전화를 해서 수리 방법을 전해 들었지만 워낙 복잡한 기계라 제대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전문 기술자 파견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한 기술자가 새

파란 20대의 애송이 청년이었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미국 본사에 다시 팩스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숙달되고 노련한 전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답신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기계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 그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선이나 배관이 끊어진 곳이 없나 살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의 관계를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예수가 길ियो,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생활 속의 잠언 ::

나의 처음 것에 감사하자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이 건강하다면, 어제의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고 성실하게 산 결과이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면, 어제의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셨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교를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입사한 제자들로부터 가끔 연락이 온다. 그들에게서 선생님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다.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아이들에게서 무한한 행복과 감사를 느끼고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 한 그릇의 물을 대접받아도 은혜를 잊지 말라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항상 풍요롭게 만들고 사람답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표이다.

다가오는 12월, 미국 달라스에 살고 있는 친구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달라스라는 지명이 웬지 입에 익고 귀에 익은 것 같아서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아주 오래전, 서울로 보금자리를 옮

기고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던 김경천 목사님이 떠올랐다. 혹시나 싶어서 교회에 전화를 하여 김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수화기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수십 년 전 들었던 사모님의 목소리였다. 몇 마디를 주고받으면서 사모님과 나는 이십여 년 전의 그 시간을 함께 떠올렸다.

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은 달라스에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타코마라는 곳이라고 한다. 이번 12월에 목사님을 찾아뵙고 오늘의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셨던 지난날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오고 싶다.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아이를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부모처럼 지금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신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못할 것 같다. 처음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감사함을 전하고 그 시절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인간

지정을 다시금 나누는 모습을 보신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김 목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시절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예수중심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교회 신문을 매주 읽으며 이곳을 향한 그 리움을 달래며 지내신다고 하셨다. 이십년 이상을 한국과 예수중심교회와 총회장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도 더욱 기뻐하실 것 같다.

머나먼 이국에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불철주야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며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오늘의 나로 만들어 주신 교회와 목사님께 새삼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알아야 하고 그 도리를 지키는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말(言)

프랑스의 휴양도시 니스의 한 카페에는 이런 가격표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Coffee! 7 Euro.

▶Coffee Please! 4.25 Euro.

▶Hello, Coffee Please! 1.4 Euro.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커피~’ 라고 반말하는 사람에게는 1만원.

▶‘커피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사람에게는 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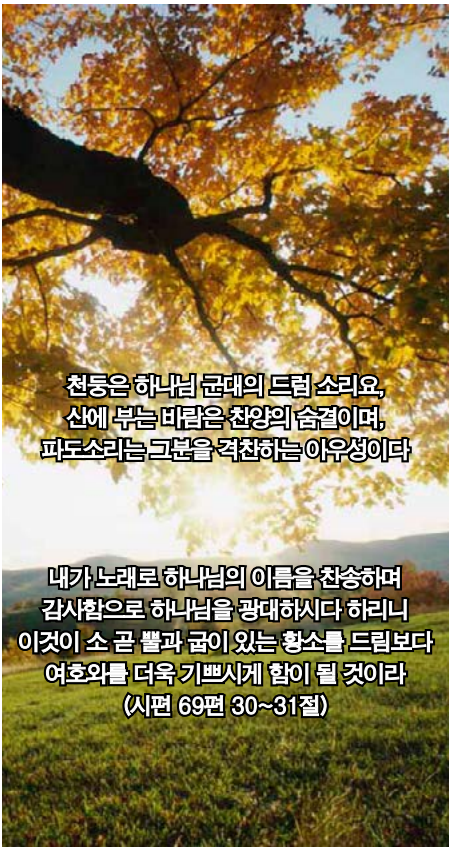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예의바르고 상냥한 손님에게는 2천원.

이 기발한 가격표를 만든 사람은 이 카페주인이라네요. 손님들이 하도 종업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푸줏간에서 고기를 파는 사람을 조금 하대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 시절 김선택이란 자가 푸줏간에서 고기를 팔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와서는 “어이, 개똥아. 고기 두 근만 다오.” 하며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개똥이라 불린 김선택은 고기를 잘라 종이에 말아주었습니다. 바로 그 때 다른 사람이 또 고기를 사러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김 서방, 고기 두 근 주시게나.” 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김선택은 “예.” 하고는 고기를 잘라 종이에 말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온 사람이 흘끗 보니 같은 두 근인데 자기 것보다 양도 많고 육질도 훨씬 좋아보였습니다. “야, 개똥아. 왜 내 거랑 차이가 나는 거야? 똑같은 두 근인데 왜 이리 달라?” 하고 소리를 지르자 김선택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다를 수밖에요. 그건 개똥이가 준 것이고, 이건 김 서방이 자른 거니까요.”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은 인품입니다. 자신의 인품을 높이느냐 땅에 떨어트리느냐는 당신의 세 치 혀에 있습니다.



천둥은 하나님 군대의 드림 소리요,
신에 부는 바람은 천양의 숨결이며,
파도소리는 그분을 격찬하는 아우성이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골 밭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의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31절)